

52도 고량주를 모두 마시고 다리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얼굴에 화끈거리는 술 기운과 바다바람의 차가움이 얼굴로 스쳐 지나가면서 입에는 저절로 가슴에 담겨 두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9시에 호텔에 들어와서 술과 그리운 추억에 푹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옆을 보니 아직 김 목사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6시 30분에 2층으로 내려가서 호텔에서 준비한 조식을 먹고 눈이 내린 청도 시내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도는 해변가라 눈이 겨울에 많이 옵니다. 다른 분들은 여름 휴가를 청도로 오지만 저는 청도의 겨울이 더욱 아름다운 도시 인 것 같습니다.

눈 위에서 도시를 감상하고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권 선생님 호텔에 계시지 않네요?”

“아침 식사하고 산책 중입니다. 목사님 2층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시면 제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층 호텔식당에 올라가보니 김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푹 들어간 것 보니 밤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 앞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보니.....평소에 농땡이 많이 부려서 혼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잠자면서 기도 하면 안되나요? 꼭...특이하게 금식과 잠 안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 인냥 생각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다양성도 있지요. 이 점 권선생님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일단 식사 맛나게 하고요, 면도 좀 하시고요.....저는 먼저 방에 올라가있겠습니다”